

# INTERNI



(주)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

George Yabu, Glenn Pushelberg

포스코건설 디자인그룹 실내건축팀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국내외 주거공간 사례

AUGUST. 2011



9 771228 624002  
ISSN 1228-6249

[www.internidecor.com](http://www.internidecor.com) <http://cafe.naver.com/spacecoordination>



## DOOV DESIGN'S의 윤해영이 제안하는 상업공간 인테리어디자인 아이디어

취재 유승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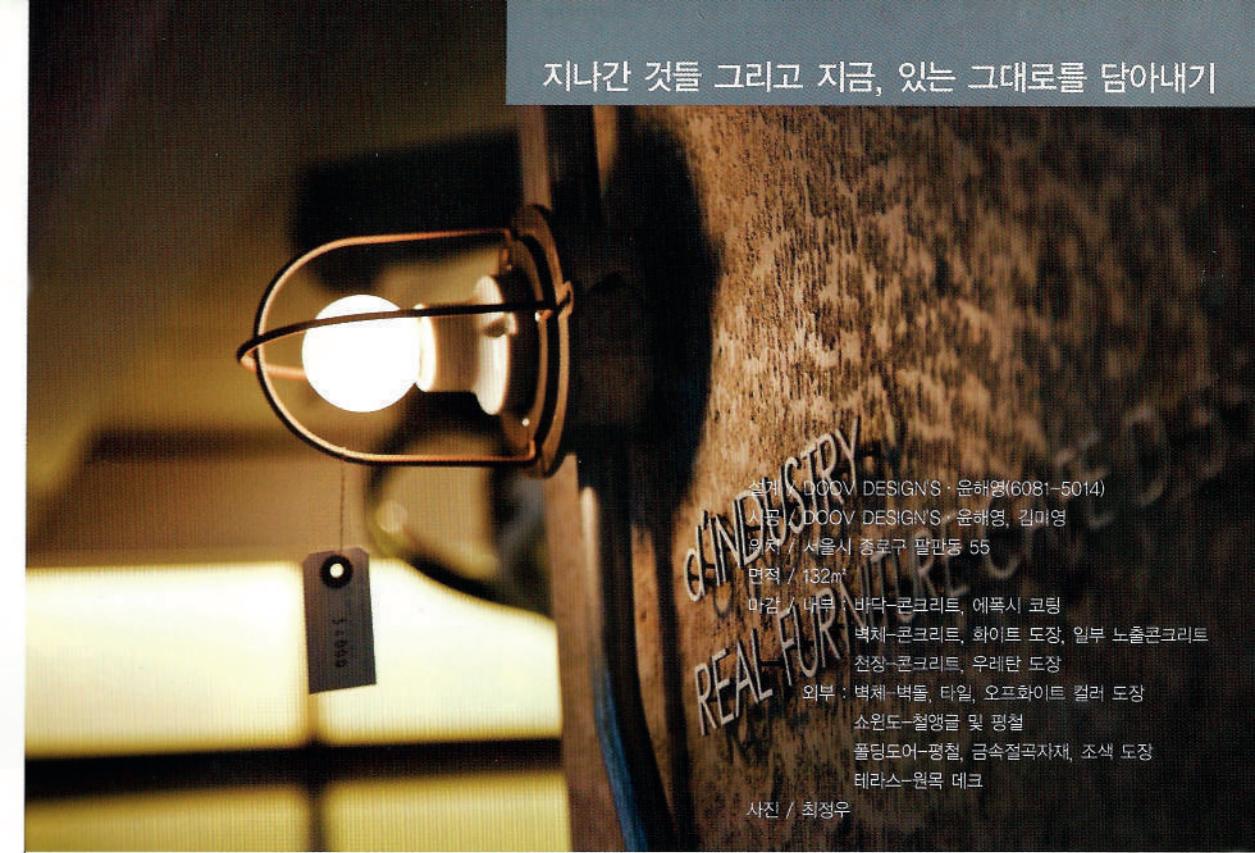
인물사진 최정우

프레임 속에 시간이 중첩되어 있다.  
이렇게 시각적인 하나의 것들이 교차되면서 공간은 형성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역행해 하나의 프레임을 찾고,  
온전히 채워지지 않은 공간을 제시할 뿐.  
그래서 이 공간의 주인공은 가구이기도 혹은 당신이기도 하다.

이번호에서는 DOOV DESIGN'S의 대표, 디자이너 윤해영이  
다양한 상업공간 디자인을 통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보여주고자 한다.

**학력 및 경력**  
단국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우노필름 '유령' 세트디자인  
'나비' 영상, 설치작가 포럼 참여  
시립미술관 '유쾌한 공작소' 展  
쌈지아트 스페이스 '소소소' 展  
싱가포르 마리나스퀘어 P.O.A.(People Of Asia) Showroom 설계·시공  
GOOD DESIGN 인테리어부문 수상(P.O.A.)  
미국 라스베가스 World Market Center  
'J&Y GOLD COLLECTION' 전시기획·설계  
현 DOOV DESIGN'S, d'INDUSTRY 대표



### CAFE D\_55

디자이너는 이 공간과의 조우를 이렇게 회상한다. “아직까지는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가구를 선보일 장소였기에 지리적 특성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부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따랐다. 강남일대가 아닌 삼청동을 택한 이유는 다복합적인 문화공간이라는 점과 내외국인의 유동이 활발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본 건물과의 만남에 더 큰 비중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건축된, 어찌 보면 볼품없는 이 작은 주택은 나에게 표현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현재의 CAFE D\_55로 거듭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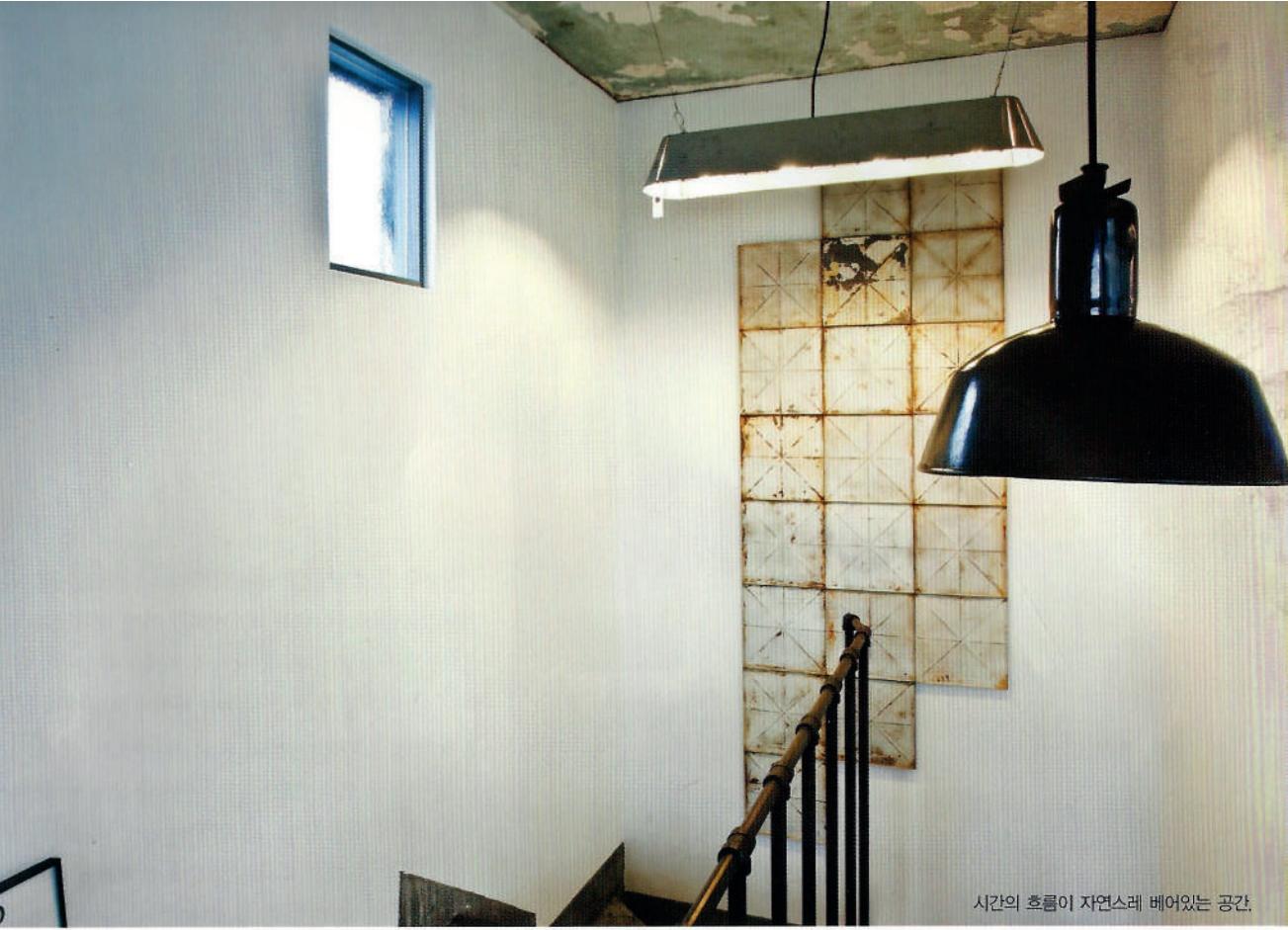


주택으로 사용되던 당시의 모습이 남아 이곳만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

이곳에서는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한 가구들을 만나볼 수 있다.

삼청동 초입, 주변의 모습과 전혀 이질감이 없이 마치 언젠가 만났던 사람처럼 익숙한 모습으로 첫인사를 건네는 CAFE D\_55. 이곳은 DOOV DESIGN'S가 운영하고 있는 'd'INDUSTRY'라는 가구브랜드의 쇼룸 겸 카페이다. 디자이너가 주거공간이던 이 쟁가옥을 상업공간으로 활용함에 있어 가장 신중을 기했던 점은 '그 건물이 담고 있던 지난 시간과의 중첩과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시간과의 소통'이었다. 또한 삼청동처럼 근시대의 가옥들이 남겨진 특수성을 지닌 지역에서 조차 한옥 외에는 행정적 보호 밖의 낡은 건물로 취급되고,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명할리 없는 이 건축물에 대한 나름의 애착이랄까. 이 작지만 소중한 공간에 그래서 그는 리뉴얼이 아닌 리사이클링을 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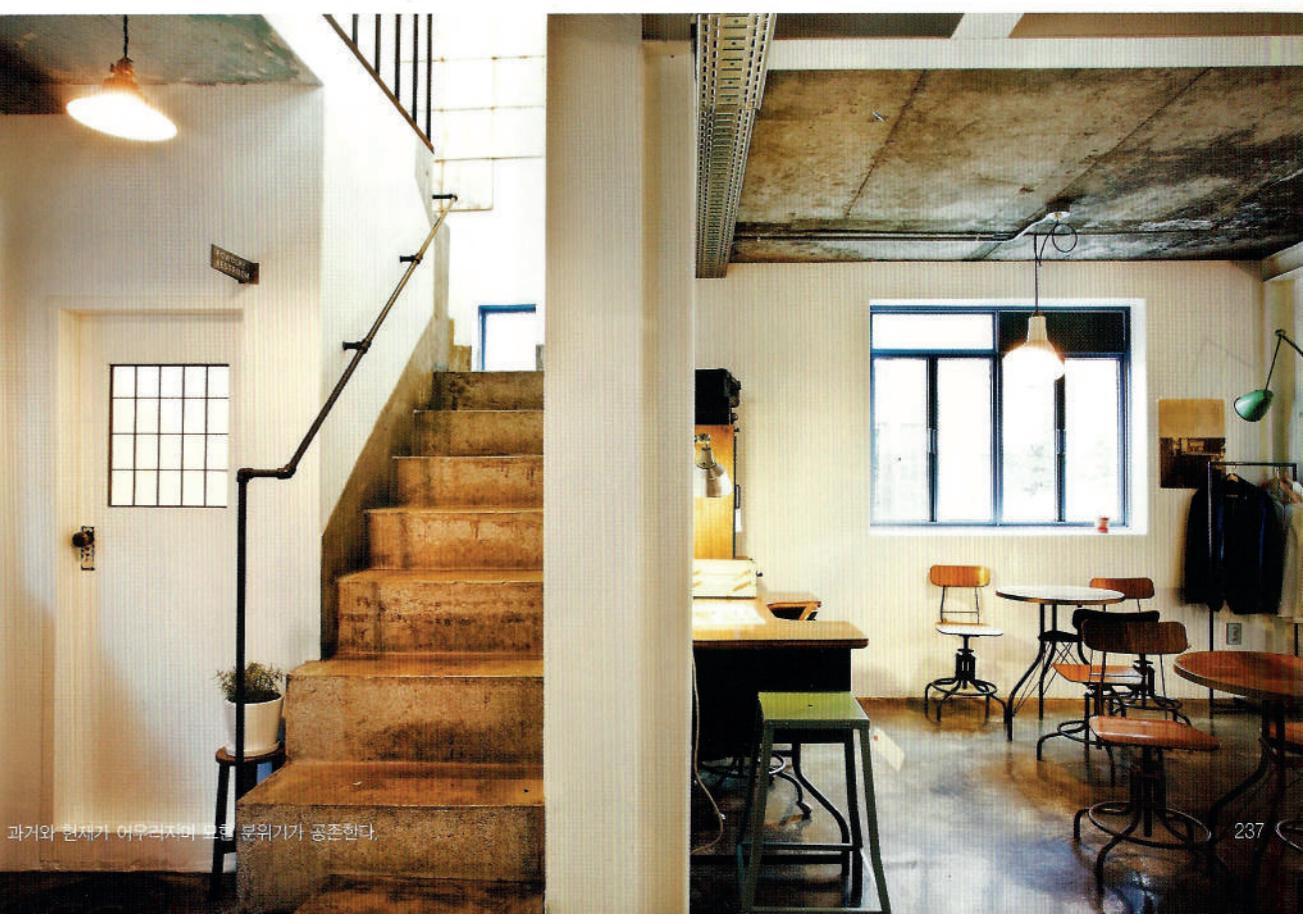
이에 따라 내부 벽면과 천장이 지니고 있던 회색의 배색에 맞추어 나머지 공간의 색상을 선택했는데, 마감을 겉어낸 뒤 모습을 드러낸 빛바랜 컬러와 상처들을 그저 거부감 없이 수용해 낸 점이 깊은 인상을 남긴다. 더불어 기존의 손잡이, 창호 구조와 같은 요소들에 새로이 유입되는 것들 간의 어색하지 않은 어울림을 이끌어냈다. 이는 공간을 대함에 있어, 마치 바통을 이어받는다는 개념으로, 즉 어울림의 교집합으로써의 '공존'을 찾으려한 그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 단순히 빈티지라서 좋은 것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이야기에 주목하고 그가 품은 세월까지도 보듬어내면서 말이다. 당대의 멋이 담겨져 있기 때문일까, CAFE D\_55는 갑자기 등장한 곳이 아닌,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것 같은 친근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이 자연스레 베어있는 공간.

이 외에도 전망 좋은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2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테라스 외부와의 경계면인 삼면 모두를 개방할 수 있도록 각각 분할된 무빙월 시스템 개념의 창호를 설치해 멋진 전경을 내부로 끌어들였다. 외관 또한 대부분이 원 건물의 상태로 유지되게 했지만, 건물의 위치적 조건을 고려해 건물 전체가 보여지는 거리 영역안의 프레임을 기준, 건물 외벽 전체를 작은 상호 텍스트의 배경으로 활용하고, 그 너머로 보이는 테라스 창호와 내부 디테일의 극적인 비례로 시각적 집중도를 높이고자 했다.

한편, 1층과 마찬가지로 2층에서도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한 혹은 유럽 등지에서 수집한 가구들로 주목성을 갖는데, '공간을 환기시키주는 하나의 코드'로써의 의미를 지닌 가구,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정성어린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랐다. 그래서 행여나 인더스트리얼 가구에 이질감을 갖고 있었다면, CAFE D\_55에 앉아 어느새 내가 획일화되고 대중적인 것만을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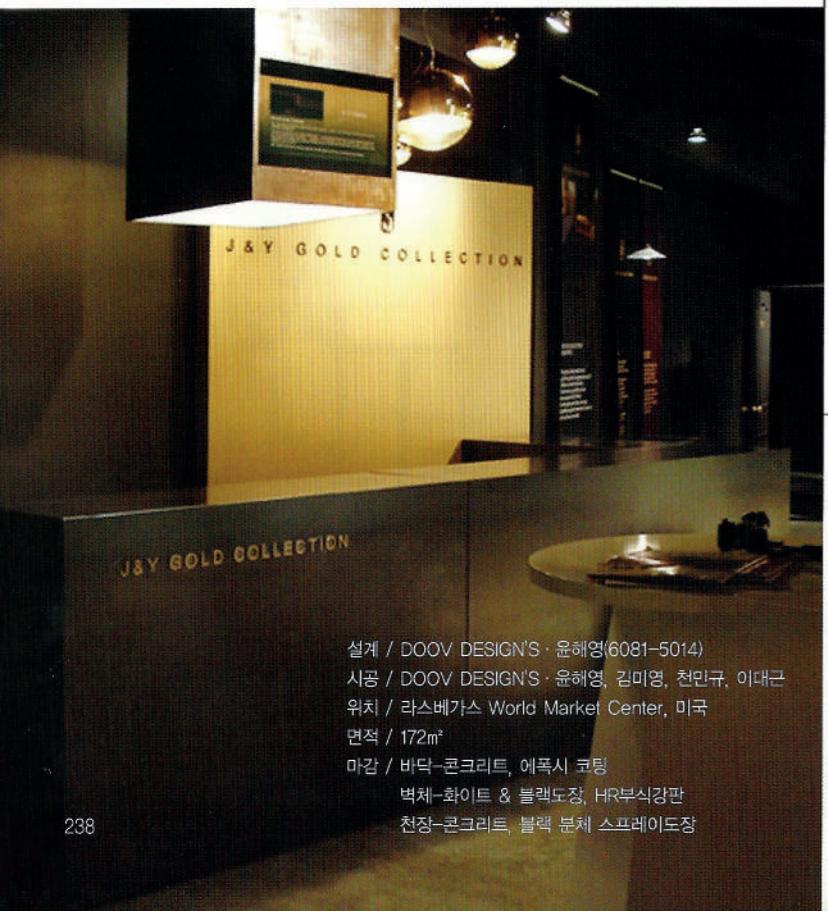




블랙, 화이트, 그레이를 주조색으로, Gold 제품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디자이너는 먼저, 공간이 아닌 그 안에서 소개되는 요소들에 대해 파악했다. 이에 J&Y GOLD COLLECTION의 Gold 제품(순금 소재의 식기류, 타일, 욕실용품)을 전시방식으로 구성해보니, 소비자로 하여금 단순한 제품으로써가 아닌, 마치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듯, 개개의 제품이 지닌 가치와 브랜드만의 특별함을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미니멀한 공간과 아날로그적인 구성요소간의 믹스 앤 매치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또 다른 공간'으로써 '금'이라는 소재가 지니는 상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즉, 인간의 욕망을 대변함과 동시에 부의 가치와 아름다움으로 대표되는 Gold의 이미지를 좀 더 이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쇼케이스가 마치 무중력 상태로 문을 관통하는 듯한 시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미지화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이라는 초현실주의적인 컨셉트로, 설치된 각각의 '문'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가상의 공간으로써의 영역을 긋고,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욕망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의도했다.

## J&Y GOLD COLLECTION



설계 / DOOV DESIGN'S · 윤허영(6081-5014)  
시공 / DOOV DESIGN'S · 윤허영, 김미영, 천민규, 이대근  
위치 / 라스베가스 World Market Center, 미국  
면적 / 172m<sup>2</sup>  
마감 / 바닥-콘크리트, 에폭시 코팅  
벽체-화이트 & 블랙도장, HR부식강판  
천장-콘크리트, 블랙 분체 스프레이도장



마치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듯, 제품과 브랜드의 특별함이 느껴진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이라는 초현실주의적인 컨셉트로 설치된 각각의 문이 독특하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완성된 J&Y GOLD COLLECTION.



설계 / DDOV DESIGN'S · 윤해영(6081-5014)  
시공 / DDOV DESIGN'S · 김미영, 김도우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62-4번지  
면적 / 58m<sup>2</sup>  
마감 / 바닥-콘크리트, 에폭시 코팅  
벽체-콘크리트, 우레탄 코팅, 화이트 도장  
천장-콘크리트, 화이트 분체 스프레이 도장



설계 / DDOV DESIGN'S · 윤해영(6081-5014)  
시공 / DDOV DESIGN'S · 김미영, 천민규  
위치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1-42번지  
면적 / 63m<sup>2</sup>  
마감 / 바닥-우드 데코타일  
벽체-화이트 도장, 고벽돌  
천장-송판 노출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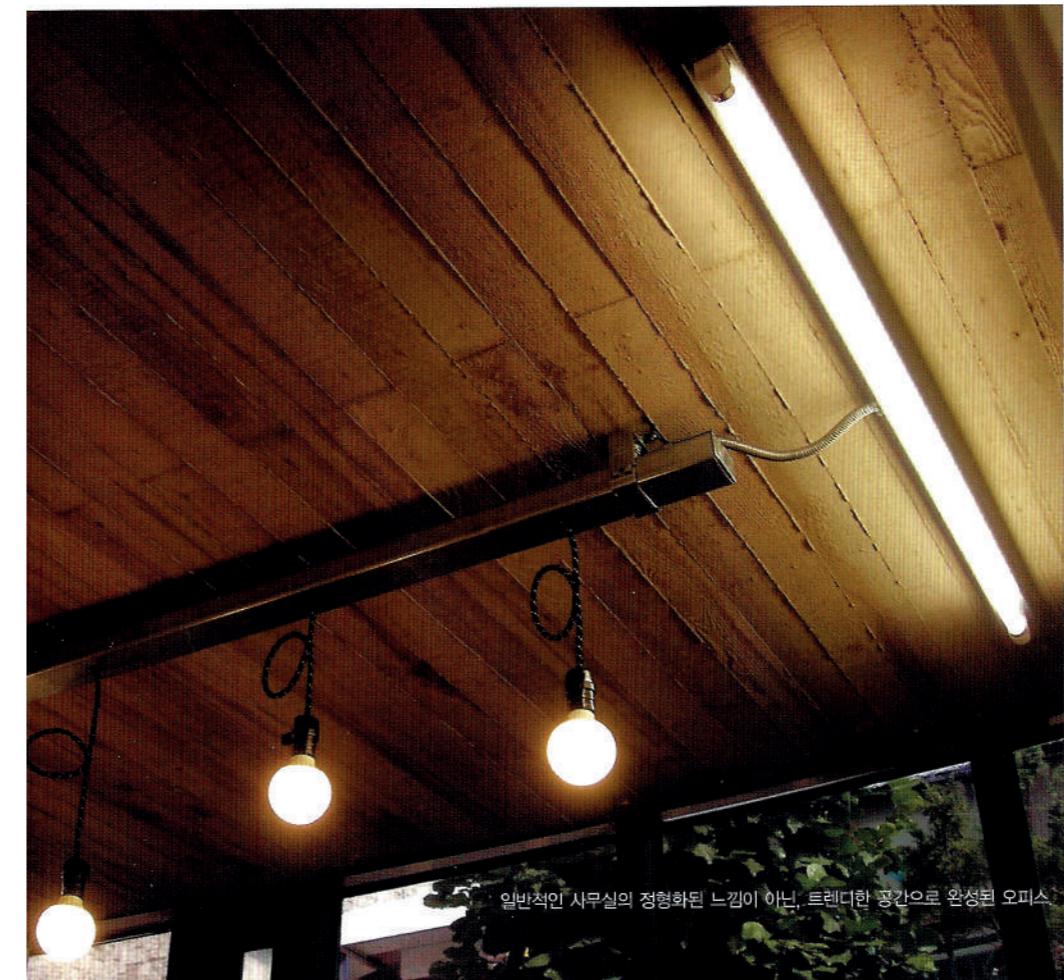
designlimit

## AN'S BLOOM



분당에 위치한 의류 숍인 AN'S BLOOM의 클라이언트는 다양한 명품브랜드의 의상을 판매하는 편집매장과 맞춤 의상을 제작하는 디자이너 브랜드를 동시에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을 의뢰했다. 이에 디자이너는 기존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수용하고자 했는데, 삼면이 쇼윈도로 이루어진 건물 입구 전면의 깊이보다 폭이 더 넓은 형태라는 점에 착안, 기존에 마련된 문의 위치를 변경하고 입구를 기점으로 좌측에는 오피스 겸 작업실로, 우측에는 편집숍 겸 쇼룸으로 분할 구성했다. 특히, 일반적인 명품 매장에서 느껴지던 딱딱함, 무거움을 없애고 사람들이 편히 유입되고, 제품의 가치는 떨어뜨리지 않는 적절한 무게감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빈티지 & 미니멀이 조화를 이룸과 동시에 고급스러움이 더해진 공간을 표현해냈다.

제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되, 적절한 무게감을 갖춘 공간 내부.



일반적인 사무실의 정형화된 느낌이 아닌, 트렌디한 공간으로 완성된 오피스.

'요즘 디자인오피스 관련 의뢰 중 대부분은 카페 같은 편안한 컨셉트를 선호하는데, 이는 사원들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로 환경을 바꾸어가고 있는 추세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esignlimit 역시 그러한 맥락을 따랐지만, 웹디자인 전문회사라는 점과 많은 바이어들을 상대해야하는 업무 특성에 따른 공간의 이미지 메이킹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다. 이에 사무공간 디자인에서 흔히 사용되는 고정적인 소재나 사인물, 소품을 통한 분위기를 연출보다는, 공간 자체로 업무적 특성을 드러내면서 편안함을 유도할 수 있는 교차점을 찾고자했다. 이러한 이유로 스테인리스 스틸 대신 합성 소재와 같은 금속 자재를 활용하거나, 화이트 톤에 나왕 합판 원자재로 포인트를 주는 등 간결하지만 차갑지 않은, 트렌디하고 젊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공간을 완성해냈다.' □